

# 순간과 영원 사이에 낀 인간존재의 시간철학

《시간의 철학적 성찰》 펄먼 소광희 교수



원로 철학자 소광희 명예교수(67, 서울대 철학과)가 동서양의 철학적 시간론을 집대성한 《시간의 철학적 성찰》을 펴냈다. 지난 1999년 근 40년에 걸친 교단생활을 마감하는 퇴임 축하연에서 동학과 후학 그리고 지인들에게 시간론 연구를 정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여생을 안온하게 누릴 법도 하건만, 평생 걸어온 학자의 길을 중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소교수는 3년 반 동안 서재에 칩거한 채 위대한 철인들의 방대한 시간철학을 읽고 사색하며 집필하느라 정작 자신은 시간을 잊은 채 살아왔다. 시간론과 사투를 벌이고 있던 그에게 시간이 심술을 부린 적이 한번 있었다. 뒤늦게 워드 프로세서를 배워 간신히 1백여 쪽을 입력했는데 그만 몽땅 날려버린 것이었다. 망연자실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이것을 다시 입력하는 데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지불해야 했다.

## 시간철학을 가로지르는 핵심 주제는 시간의식

시간은 선철(先哲)들이 그에게 던진 ‘공안’이었다. ‘시간의 수인(四人)’인 인간에게 시간만큼 심원한 난제도 없다. 그러기에 역사상 무수한 이성의 천재들이 시간의 본질, 시간의 인식, 시간 양상의 문제, 시간과 영혼의 관계, 시간의 근원 등과 씨름해왔다. 그의 말처럼 “시간은 황혼길에 접어든 자의 주제, 아니 최후의 주제”이기도 하다.

“철학의 주제는 크게 존재론과 시간론으로 나뉩니다. 존재론이 현상의 본질적인 실재를 문제삼는다면, 시간론은 모든 존재의 생성과 소멸을 주관하는 시간의 본질을 따지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은 이 양대산맥에서 발원합니다.”

이 책은 3편으로 나눠 시간을 고찰한다. 1편에서는 시간에 대한 일

소광희 교수가 펴낸 《시간의 철학적 성찰》은 40여 년 동안 강단에 서온 원로 철학자의 학문적 연륜이 집대성된 역작이다. 그는 이 책에서 서양의 플라톤부터 동양의 선 불교에 이르기까지 시간사상을 종횡으로 누비면서 시간의식의 전개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는 한국인의 심성구조에 가장 부합하는 시간론으로 선 불교의 시간관을 제시하는데, 이는 현세에 대한 절대긍정을 지향한다.

반적 표상과 시간에 대한 과학적 연구, 그리고 생명체와 시간의 관계를, 2편에서는 플라톤부터 스피노자에 이르는 시간이론을, 그리고 3편에서는 칸트부터 하이데거까지 근대 이후의 시간사상을 천착한다. 이 책을 가로지르는 핵심주제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시간의식이다.

“시간은 인간의 탄생과 함께 있다가 인간의 죽음과 함께 없어집니다. 인간이 없고 시간의식이 없다면, 시간의 의미나 시간 자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시간의 길이를 측정해 양화하려는 자연과학과 철학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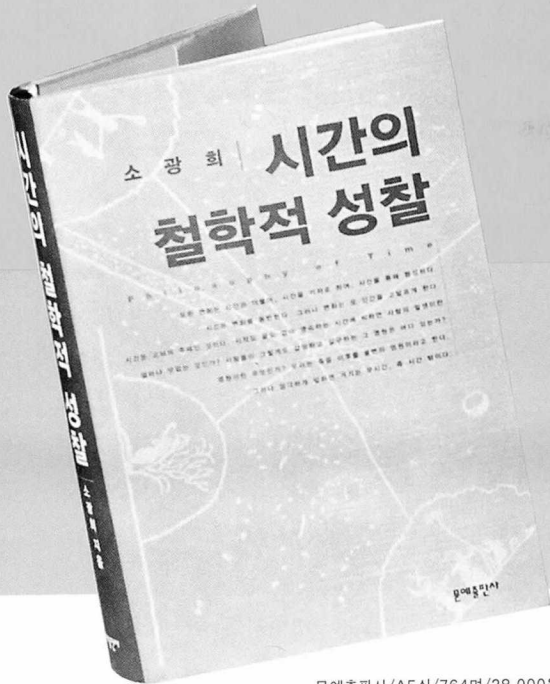
철학자들의 시간의식도 시대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시간의 진행을 이해하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됐다. 그리스 철학에서 시간은 영원을 원상(原像)으로 해서 영속적으로 운행하는 천체의 규칙적 순환으로 간주됐다. 플라톤의 뒤를 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주기적 운동으로 파악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과 운동을 연결시킴으로써 과학적 시간연구의 길을 열었다면, 그리스의 철학적 시간론과 기독교의 시간사상을 통합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철학적 시간론의 주류인 시간-의식을 정초했다. 그는 시간을 철저히 주관화했는데, 시간의 소재가 의식에 있으며 시간존재의 현주소는 전적으로 현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갈파했다.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과거·현재·미래라는 세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세 개의 시간은 과거의 것에 대한 현재, 현재의 것에 대한 현재, 미래의 것에 대한 현재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마음 속에 있으며 마음 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것에 대한 현재는 기억이며, 현재의 것에 대한 현재는 직관이며, 미래의 것에 대한 현재는 기대인 것입니다.”

## 근대에 이르러 시간 이분화돼

중세에 이르면 시간론은 영원과 구원의 문제에 자리를 내준다.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정점을 이룬 스콜라 철학은 신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논



문예출판사/A5신/764면/28,000원

증하는 데 시간을 바쳤다. 영원의 문제는 스피노자에게 이어지는데, 그는 기하학적 증명방법으로 필연성이 곧 영원성을 입증했다. 그에 이르러 영원개념은 인간의 사유 속으로 내재화한다.

근대에 들어 시간론은 부활한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턴의 과학적 시간사상을 계승한 칸트는 시간의 양상을 오직 계기로서 파악한다. 헤겔은 철학사상 처음으로 자연시간과 의식시간을 구분해 시간양상은 의식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을 천명했다. 헤겔의 시간론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베르그송은 순수지속으로서 의식의 흐름에 주목한다.

후설과 하이데거에 이르러 인간의 시간의식은 철학의 전면에 등장한다. 후설은 시간구성의 원천으로 반성하는 자아와 반성되는 자아를 나누고 반성하는 자아를 '살아 있는 현재'라고 명명한다. 우리가 사는 구체적 현실세계로부터 출발한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시간성을 주제화하는데, 이는 '기존하면서-현존화하는-장래'로 표현된다.

칸트에서 하이데거에 이르는 서구 근·현대 시간사상에서 소교수가 주목하는 것은 시간 자체가 이원화됐다는 점이다. 즉 칸트는 시간을 순수직관 형식과 연속성으로 나눴고, 헤겔은 자연시간과 개념시간으로 구분했다. 베르그송은 동질적·공간적 시간과 지속으로서의 시간으로, 후설은 초월적 시간과 의식 내재적 시간성으로, 그리고 하이데거는 비본래적 시간과 본래적 시간으로 구별했다.

이 책이 서양의 시간사상으로만 일관했다면 그 가치는 반감될 것이다. 소교수는 서양과는 다른 사유의 전통에 선 동양적 시간관으로서 청송 고흥군 교수의 선불교적 시간관을 검토한다. 청송이 저술한 《선의 세계》는 한국에서 시간론 연구의 효시로 꼽힌다. 서구의 시간사상과 선 불교의 시간관을 수용해 독자적인 시간론을 펼친 청송의 시간철학은 '절대 현재론'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시간 자체를 없애버리는 무시간론으로 귀결된다.

“한국적 심성에 가장 근접한 시간관은 선불교적 시간철학입니다.

청송의 시간론은 현세에 대한 절대긍정을 지향하죠. 그는 현재를 절대화하고 과거와 미래를 현재 속에 흡수해버립니다. 서양의 시간사상에서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현재와 연속시키는가가 난제로 남아 있는데, 청송은 이를 단숨에 뛰어넘죠. 절대 현재에서는 연속성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 방대한 시간논의에 지반을 매기고자 했다

이 책은 언뜻 보면 동서양 시간론에 대한 기나긴 각주처럼 보인다. 시간론을 설파한 철학자들의 원문을 도처에 인용하면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일면적 관찰일 뿐 오히려 소교수의 해석을 적극 개입시키고 있다. 후설의 시간을 객관시간, 주관적·객관적 시간으로 해석한 후대 학자들의 주장을 논박하면서 그것을 실제 시간론이라고 논증한 대목이 한 예다.

소교수 자신의 시간관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그는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시간에 대한 심오한 통찰은 세기적 천재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다만 이 책에서 방대하게 흩어져 있는 시간 논의에 지반을 매기고자 했을 뿐이죠”라는 말로 답을 대신한다. 엄밀한 철학적 이론으로 자신의 시간관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인으로서 그의 시간에 대한 입장이 없을 리 없다.

“요즘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숨이 차요. 왜 그리 초조하고 급하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지도 않는 듯합니다. 속도에 휩쓸리기보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보고,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며 살아야죠. 시간은 결국 우리 마음 속에서 흘러가는 것 아니겠어요.” — 박천홍 기자

#### 시간철학에서 얻은 관조의 지혜

소광희 교수를 만나러 약속장소에 가는 발걸음이 빨라졌다. 시간이 적절히 늦어져 있었다. 마음이 초조하고 다급해졌다. 연신 시계를 훑어보며 걸음을 재촉하다 보니, 만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떨어지는 은행잎도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뿐이었다. 인간은 '시간의 수인(囚人)'이란 어느 시인의 말이 떠올라 씩씩해졌다.

차집에 도착하니 흐르는 음악에 파묻혀 소교수가 시간을 잊은 선승처럼 그렇게 고즈넉하게 앉아 있다. 조금하게 이것저것 질문하고 받아적는데, 인터뷰가 끝날 무렵쯤 그가 던진 말에 갑자기 툭 하고 팽팡하던 시간의 줄이 끊어지는 착각에 빠졌다.

“이 책을 쓰면서 주제가 주제인 만큼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무엇보다 모든 것을 한 발짝 물러서서 관조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일에 쫓겨 각박해지지 않고 남에게 관대하면서 내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져야겠다는 거였죠. 정년퇴임 후에 뒤늦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나를 어떻게 정화시킬 것인가 하는 답을 찾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텍스트를 논리적으로 따지려 드는 습성이 사라지지 않아 쉽게 읽히지 않더군요.”

소교수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황금빛으로 물든 거리의 풍경을 찬찬히 구경하며 보들레르의 말을 떠올렸다. “매시간 우리는 시간에 대한 생각과 느낌에 짓눌린다. 이런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쾌락과 일이 그것이다. 쾌락은 우리를 소진시키고, 일은 우리를 강화시킨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마도 보들레르가 각박하게 제시한 두 가지 선택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 것이다.